

96.3.2

방치된 아이들 꺼안기 온힘

‘부스러기선교회’ 10년째 빈민지역 공부방·어린이집 지원

이병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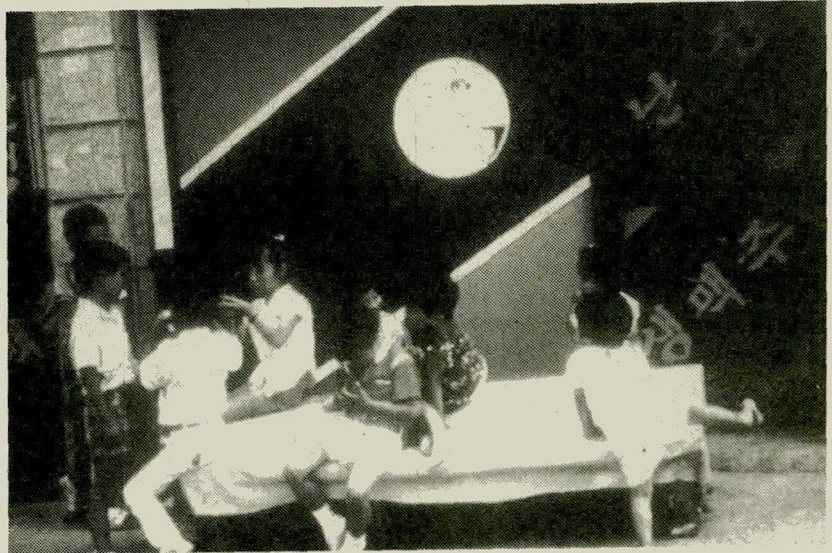
“나는 엄마가 안 계셔서 다른 아이들이 부럽다. 빵꾸가 난 바지를 입을 땀 정말 창피하다.” “입학식날 혼자 학교에 갔다. 엄마 손을 잡고 나온 다른 아이들을 보고 나는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부스러기선교회(공동대표 김인숙·이은화·임성이)가 최근 펴낸 <부스러기 편지> 제113호에 실린 글이다.

부스러기선교회가 최근 공단·농어촌·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육아방 어린이들 4백 32명을 대상으로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조사·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의·식·주 등 기본적 생계와 관련된 소망이 23.3%에 이른다. 또 ‘관심과 사랑’ ‘엄마·아빠’라고 응답한 어린이도 5.1%나 돼 이들에게 시급한 것이 기본생계 유지와 사회·학교·가정의 애정 어린 관심임을 보여줬다.

올해 12월로 창립 10돌을 맞는 부스러기선교회는 지난 86년 이래 지금까지 공단·농어촌·탄광촌·빈민지역 등에서 선교활동을 펴며 이들 지역 공부방·어린이집을 지원해 온 보기 드문 순수 민간비영리단체다.

이 단체는 그동안 정부의 관심권에서도 벗어나 있던 결손가정 및 빈곤층 맞벌이부부 자녀들의 학습과 복지를 위해 힘겨운 활동을 눈에 띄지 않게 벌여 왔다. 처음엔 사무실도 없이 회원들이 바자회 등을 열어 5개 육아방에 식비·연료비 등을 지원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엔 전국 25개 공부방과 10개 어린이집에 식비는 물론, 교재교구·장난감 구입비, 시설비, 교사 최



부스러기선교회는 10년째 농어촌·공단·도시빈민지역의 결손·빈곤가정 어린이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도시 변두리지역 골목의 어린이들.

저생계비까지 지원하고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선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이런 활동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데는 1천여명에 이르는 개인·단체 후원자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답지한 후원금(부스러기)이 큰 구실을 했다.

10년 동안 다달이 빈곤층 아이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50쪽짜리 <부스러기 편지>를 발행하고, 육아방·공부방 교사와 전 화상담임 교육, 글잔치·그림잔치 등 각종 행사를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 ‘거룩한 부스러기’가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창립 당시부터 부스러기선교회를 꾸려오고 있는 강명순 총무는 “결손·극빈가정 어

린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방치돼 가출·타락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쪽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선교회는 창립 10년째이자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해’인 올해를 ‘가난한 어린이·청소년의 꿈과 소원을 이뤄주는 해’로 정하고 ‘결손가정 바로세우기’ ‘부스러기장학재단 설립’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생계비를 지원받는 소년소녀가장은 8천1백7세대로 부양가족을 보태면 1만5천1백18명에 이르며 결손가정의 아이들은 알려지기 힘든 특성으로 인해 파악 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